

간호사를 위한 맞춤형보육어린이집의 개발에 관한 연구

강기선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Research on Development of a Customized Nursery School for Nurses

Ki-Seon Kang

Department of Nursing, Jeju Halla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취업모인 간호사의 일·가족사이의 균형을 지지하고 사직·이직을 예방할 수 있는 맞춤형보육어린이집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방법은 맞춤형보육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하고, 가입기 간호사의 맞춤형보육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알아보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하여 숙련된 간호사를 확보하고, 이직을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맞춤형보육 어린이집은 취업모인 간호사가 365일 3교대로 연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녀 보육을 도와주어서, 간호사의 일·가정 양립의 실현을 지지하여 이직·사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설되어야한다. 간호사의 역할 중에서 돌봄 제공자의 역할은 간호사의 최우선 역할이고 24시간 교대로 연속 근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퇴직한 간호사를 맞춤형보육어린이집의 간호사 자녀 돌봄 인력으로 활용한다면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리고 맞춤형보육어린이집이 취업모인 간호사의 근무상황 및 인식·요구에 맞춰서 운영이 된다면 간호사들의 사직·이직률이 낮아지고, 결혼 및 출산 계획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어 저 출산율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맞춤형보육어린이집이 활성화 되려면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의 자질을 높이는 데 큰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영유아의 기본생활과 습관형성을 돕는 것을 중점으로 시행하고,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관리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a Customized Nursery School where working women can support work - life balance and a reduction in retirement or turnover. The research method i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Customized Nursery services and to recognize the recognition and need of the operation of Customized Nursery School.

The importance of securing skilled nurses and preventing them from changing their jobs for the health and safety of people cannot be emphasized enough. A Customized Nursery School must be opened to reduce the retirement or change of jobs of working women nurses and to provide care for continuous work in three shifts from 365days to support the balance between the working mother and family. It is considered that nurses will put their children in relief when using retired nurses who have the ability to work 24hour rotation in a Customized Nursery School and when a Customized Nursery School be ran suited for the condition and demand of working women nurses, it is expected to reduce retirement and the change of jobs, also to give positive effect on marriage and family planning which would make improvement in low birthrate. To activate the Customized Nursery School, Creating a secure learning environment and qualification of educators great effort should be put. A program curriculum based on 'basic life and habits' should be the center of education. Continuous management and effort will need to be placed in continuous development of educators.

Keywords : A Customized Nursery School, Work-Life Balance, Recognition, Needs, Working Women(nurses)

*Corresponding Author : Ki-Seon Kang(Jeju Halla Univ.)

Tel: +82-64-741-7656 email: kks7434289@nate.com

Received January 7, 2019

Revised February 8, 2019

Accepted March 8, 2019

Published March 31, 20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에서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은 영아기를 부모와 가정에서 보내기보다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2013년을 기점으로 10년 전의 통계치보다 3배가 넘는 비율의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데[1], 이는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취업으로 맞벌이가 증가하면서 점차 어린이집 이용의 비율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2,3]. 또한 최근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취업의 확대 및 전통적 가족에 의한 돌봄 체계의 약화 등으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지원요구가 증가하고 있음과 동시에 결혼기피·저출산·고령화·이혼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도 발생되고 있어서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수렴하여 보육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4].

그리고 최근 세계화·정보화가 가속됨에 따라 과거 주간근무의 형태는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일을 하는 형태로 다변화 되고 있고, 근로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취업모의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출퇴근 시간을 포함하여 업무시간 동안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일·가족 양립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5-7]고 하였다.

그런데, 2017년 간호사 188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는 간호사의 61.3%에서 아직 및 퇴직 경험이 있으며, 그 가장 큰 원인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라고 보고되고 있다[8].

또한 최근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실시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보호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기 입원환자를 돌봐줄 수 있는 제도인데, 이 서비스가 성공하려면 먼저 의료법 상 간호사 인력기준의 변화로 조래되는 간호사 노동 강도를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료법] 제 36조 제5호 및[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간호사의 인력 기준으로는 의료 기관에서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5명 당 1명의 간호사를 두어야하는데, 현재 간호사 1명당 돌보는 환자의 수는 15-20명으로, 선진 외국과 비교해보면, 간호사에게 엄청난 강도의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형편이다[9]. 따라서 간호사들의 결혼 및 육아로 노동의 강도가 더욱 가중되는 것을 예방하여 사직·이직을 막고, 일·가정의 양립을 원활하게 할 수 있

도록 도와주기 위한 맞춤형육서비스의 도입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 간호인력 수급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현재 전국의 종합병원 등에 직장어린이집이 있지만, 운영자의 입장에서 야간 근무할 보육교사 확보 및 운영의 어려움으로, 대부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종일제로 운영되거나 저녁 11시까지 시간 연장어린이집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3교대로 24시간 연속 근무를 해야 하는 간호사는 자녀 돌봄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직장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길 수 없는 형편이다[10].

그런데 정부에서도 2002년부터 가장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왔던 것이 맞춤형육서비스이며, 이 중에서도 시간 연장·24시간·휴일보육 서비스에 큰 관심을 기울여 왔는데도 여전히 취업모의 경력단절 현상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7]. 그리고 간호사를 위한 맞춤형육어린이집은 시간 연장·24시간·휴일보육서비스 이 셋 전부를 아우르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24시간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취업모의 일·지속성 및 일·가정양립의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대부분의 연구들이 아동의 발달과 관련되거나 보육교사와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인식도 관련 조사연구들[6,11], 기존 운영 중인 24시간어린이집 이용 확충과 관련하여 학부모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운영에 대한 인식도나 만족도를 알아보는 연구 등이 있으며, 그나마 사례가 적어 일반화 시킬 수 없는 형편이다[6-7,12]. 그리고 간호사 대상의 어린이집에 대한 연구로는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알아본 연구 및 영아기 자녀를 둔 간호사 엄마의 양육의 기대감을 알아본 연구, 간호사 엄마의 육아 경험에 관한 연구[10,13-14] 등 소수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드물게 있을 뿐이다.

이에 본연구자는 문헌을 통해 최근 맞춤형육서비스의 현황을 고찰하고, 가임기 간호사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여 취업모인 간호사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육어린이집의 개설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를 시도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맞춤보육(시간 연장·24시간·휴일보육)서비스와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간호사의 맞춤형육어린이집에 대

한 인식 및 요구를 알아본다.

2. 본론

2.1 연구방법

2.1.1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선행연구의 검토로 이루어졌으며, 취업모의 근로형태와 맞춤형보육서비스 이용실태와 운영 실태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1.2 설문조사

연구대상은 종합병원 5곳에 근무하는 만 22세에서 39세 사이의 가임기[15,16] 간호사, 즉 여성의 출산율이 가장 낮은 연령층(19세 미만과 40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 [17]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대상자 400명 중 피험자 동의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충실히 답한 378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측정도구인 설문지는 시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보육교사와 부모의 인식에 대한 연구[10]와 24시간 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6]를 기본으로 하여 구성하였다. 그리고 문항의 적절성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간호학박사 3인과 조산원 1인, 간호사이면서 보육교사 면허소지자로 현재 시간 연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2인에게 문항을 검수 받아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문항은 수정 및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일반적 특성 3문항,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인식 4문항, 어린이집 운영내용에 대한 요구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7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에 걸쳐 실시하였고, 본연구자가 각 병원의 간호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여 허가를 받고, 병동의 수간호사를 통해서, 피험자가 휴식시간 동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동의서와 설문지를 비치하도록 하여, 피험자가 자의적으로 동의서를 작성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여 그 장소에 두고 가면 연구자가 나중에 자료를 수거하였다.

2.1.3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설문지 자료는 SPSS 18.0 PC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사항에 대한 어린이집 운영의

인식정도는 빈도분석 및 집단별 평균분석, 독립표본 t검정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2.2 연구결과

2.2.1 문헌고찰 결과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의 흐름은 새싹플랜의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에서 취업부모 지원 강화, 시간 연장보육 활성화 등이 주요과제로 제시되었고, 아이사랑플랜(2009-2012)에서는 ‘수요자 맞춤형보육’이란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 되면서 맞춤형이거구를 위한 보육료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더욱 확대하여 제안되었다. 그리고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2013-2017)에서 맞춤형 등 실수요자 중심의 보육체계 개편으로 더욱 강조되었는데,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과 취업모의 자녀 양육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7].

보육서비스의 주이용자인 취업모의 근로실태를 살펴보면 영아취업모의 56.9%, 유아취업모의 55.2% 정도가 주 40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어 있고, 1/3 이상이 시간의 근로 및 주말근무를 하고 있으며[7,18], 영아취업모의 19.7%는 종일반 등원시간인 오전 7시30분 이전에 출근하고, 20.0%는 하원시간인 오후 7시 30분 이후에 퇴근하며, 유아취업모의 12.6%가 오전 7시30분 이전에 출근하고, 19.7%는 오후 7시30분 이후에 퇴근하고 있어서 약 20% 정도에서 종일반 운영시간과 관련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게 되므로 어린이집 등원 이전과 하원 이후에 별도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어린이집과 별도로 돌봄 자원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아동 돌봄을 해결할 수밖에 없고, 여의치 않을 경우 직장을 사직하게 된다[19].

대부분 취업중단 경험이 있는 취업 모 48.7%에서 그 이유를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라고 응답하고 있다[7,20]. 따라서 추가자원을 활용하여 자녀 돌봄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보육 어린이집의 개설은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업모의 일·가족 양립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한편 수요·공급 간 차이의 문제가 맞춤형보육이 활성화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강문희 외(2000)의 연구결과에서 맞춤형보육의 수요는 야간보육 72.4%, 24시간보육 51.5%로 보고되었고[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의 연구결과에서도 야간보육 55.2%, 24시간 보육 48.4%, 휴일보육 46.7%의 수요가 있다고 했으며, 2015년 학부모 대상의 연구결과에서는 맞춤형(시간 연장·24시간·휴일보육)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하다고 58.4%,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62.5%이었다. 반면 어린이집 운영자의 응답에선 36.7%만이 필요하다고 했고, 27.0%만이 그 운영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고 있다.

맞춤보육서비스 중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시간 연장보육의 현황은 2015년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6,742개소) 중 2,000개소(29.7%)는 시간 연장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 아동의 5.1%(427명)는 미 지정시설에서 시간 연장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지정시설 및 미 지정시설 모두에서 혼합연령보육 등 시간 연장보육의 질적 문제, 보육교사 근무환경의 악화 문제, 운영상의 비효율성, 체계적 관리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이 또한 시간 연장보육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어왔다.

그리고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24시간 어린이집은 98개로 전체 어린이집수 대비 1.4%정도인데,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있어도 이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 이용자가 있어도 대상자가 적어서, 연구 및 조사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휴일보육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이용아동 여부에 상관없이 토요일에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모의 근로나 사고,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도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교사는 근무를 하고 있으나 이용아동이 한명도 없는 경우도 있어서 주 5일 근무가 확산되고 휴일근무를 줄여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몇몇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토요일 보육거점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7].

한편 취업모인 간호사는 365일 휴일 없이, 24시간 교대로 일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365일 휴일 없이 24시간 연속적으로 영유아를 돌봐줄 수 있는 맞춤형어린이집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형태는 시간 연장어린이집·24시간 어린이집·휴일보육 어린이집을 모두 통합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고, 위에서 제시된 모든 운영상의 어려움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2.2.2 설문조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20-24세’가 111명(29.4%)으로 가

장 많았고, 결혼여부에서 ‘미혼’이 258명(68.3%)이었다. 자녀수에서는 ‘없음’이 277명(73.3%)으로 가장 많았다. 그 자세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Spec.	Respondents	Percentage
Age	20-24 years	111	29.4
	25-29 years	106	28.0
	30-35 years	87	23.0
	35-39 years	74	19.6
Residence	J city	328	86.8
	Besides	50	13.2
Marital status	Single	258	68.3
	Married	120	31.7
Children	One	37	9.8
	Two	55	14.5
	Three	9	2.4
	Childless	277	73.3
All		378	100

(2) 맞춤형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인식

가임기 간호사의 맞춤형 어린이집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맞춤보육어린이집(24시간)을 자신이 직접 이용하거나 추천 하겠는가’의 질문에 ‘그렇다’ 211명(55.8%), ‘매우 그렇다’ 102명(27.0%)으로 총 313명(82.8%)이 긍정적인 답을 보였고, ‘맞춤보육어린이집(24시간)이 있다면 자녀출산 후 퇴직·이직이 감소되었는 가’의 질문에는 ‘그렇다’ 206명(54.5%), ‘매우 그렇다’ 72명(19.0%)로 총 278명(73.5%)이 긍정적인 대답이었다. ‘맞춤보육 어린이집이 있다면 추가 출산 계획을 세우겠는 가’의 질문에 ‘그렇다’ 199명(52.6%) ‘매우 그렇다’ 48명(12.7%)으로 긍정적인 대답이 247명(65.3%)이었다. 또한 ‘맞춤보육어린이집이 있다면 출산율이 늘 것인가’의 질문에 ‘그렇다’ 188명(49.7%), ‘매우 그렇다’ 46명(12.2%)으로 총 234명(61.9%)이 긍정적인 답을 보였으며, 자세한 결과는 Table 2 와 같다.

Table 2. Perception of Customized ChildCare Centers

	Spec.	Respondent	Percent age
would you like to use or recommend a customized childcare center?	Definitely not would	15	4.0
	Not would	50	13.2
	Would	211	55.8
	Definitely would	102	27.0
All		378	100.0

If there is a customized childcare center, would the retirement or turn-over decrease after the birth of a child?	Definitely not would	7	1.9
	Not would	93	24.6
	Would	206	54.5
	Definitely would	72	19.0
All		378	100.0
If there is a customized childcare center, would you like to make additional plans for childbirth?	Definitely not would	10	2.7
	Not would	121	32.0
	would	199	52.6
	Definitely would	48	12.7
All		378	100.0
If there is a customized childcare center, will the birth rate increase?	Definitely not would	9	2.4
	Not would	135	35.7
	would	188	49.7
	Definitely would	46	12.2
All		378	100.0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육아 어린이집에 대한 인식 ‘연령별’에 따른 맞춤형육아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인식을 비교분석한 결과 ‘맞춤육아 어린이집이 있다면 출산 후 퇴직·이직이 감소할 것이다’의 문항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35-39세에서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Perception of Customized ChildCare Center by Age

Variable	Categories	Mean	Deviation	Significance
would you like to use or recommend a customized childcare center?	20-24 years	3.07	.64	.819
	25-29 years	3.03	.75	
	30-35 years	3.02	.81	
	35-39 years	3.12	.83	
If there is a customized childcare center, would the retirement or turn-over decrease after the birth of a child?	20-24 years	2.77	.65	.005*
	25-29 years	2.83	.65	
	30-35 years	3.03	.74	
	35-39 years	3.08	.79	
If there is a customized childcare center, would you like to make additional plans for childbirth?	20-24 years	2.77	.59	.695
	25-29 years	2.80	.64	
	30-35 years	2.75	.82	
	35-39 years	2.68	.80	
If there is a customized childcare center, will the birth rate increase?	20-24 years	2.65	.66	.487
	25-29 years	2.71	.66	
	30-35 years	2.74	.75	
	35-39 years	2.81	.77	

(*p<.05 **p<.001)

‘결혼여부’에 따른 24시 어린이집운영에 대한 인식 정도를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비교분석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그 자세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Perception of Customized ChildCare Centers According to Marriage

Variable	Categories	Mean	Deviation	Significance
would you like to use or recommend a customized childcare center?	Single	3.06	.69	12.31 / .001*
	Married	3.04	.85	
If there is a customized childcare center, would the retirement or turnover decrease after the birth of a child?	Single	2.84	.65	5.33 / .022*
	Married	3.03	.81	
If there is a customized childcare center, would you like to make additional plans for childbirth?	Single	2.79	.63	28.20 / .000**
	Married	2.66	.83	
If there is a customized childcare center, will the birth rate increase?	Single	2.71	.66	8.92 / .003*
	Married	2.72	.79	

(*p<.05 **p<.001)

‘자녀수’에 따른 맞춤형육아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인식 정도를 집단별 비교분석한 결과 ‘맞춤육아 어린이집이 있다면 자녀 출산 계획을 추가할 것이다’의 문항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그 자세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Perception of Customized ChildCare Centers by Number of Children

Variable	Categories	Mean	Deviation	Significance
would you like to use or recommend a customized childcare center?	One	3.24	.76	.130
	Two	2.98	.87	
	Three	2.77	.83	
	Childless	3.08	.73	
If there is a customized childcare center, would the retirement or turn-over decrease after the birth of a child?	One	3.05	.88	.061
	Two	3.07	.76	
	Three	3.00	.58	
	Childless	2.90	.67	
If there is a customized childcare center, would you like to make additional plans for childbirth?	One	2.86	.86	.040*
	Two	2.53	.82	
	Three	2.38	.65	
	Childless	2.81	.69	
If there is a customized childcare center, will the birth rate increase?	One	2.76	.76	.831
	Two	2.76	.76	
	Three	2.62	.77	
	Childless	2.73	.70	

(*p<.05 **p<.001)

(4) 맞춤형보육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맞춤보육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가 ‘교육 환경과 교사의 자질’로 274명(72.5%)이었고, 2순위는 ‘집과 직장과의 거리’로 49명(13.0%)이었으며, 3순위는 ‘보육비용’으로 24명(6.3%)이었고, 그 자세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Priority of important criteria when choosing a Customized ChildCare Center

Variable	Categories	Respondent	Percentage
Priority of important criteria when choosing a Customized ChildCare Center	The teaching environment and qualifications of the educators	274	72.5
	The cost	24	6.3
	Nutrition, Health Care	22	5.8
	Distance between home and facility	49	13.0
	Program compilation applying in child-care	9	2.4
	All	378	100.0

맞춤보육어린이집 운영프로그램 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내용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가 ‘기본 생활과 습관형성’으로 131명(34.7%)이었고, 2순위는 ‘정서적 안정’으로 86명(22.8%)이었으며, 3순위는 ‘감염 예방 및 안전관리’로 63명 (16.7%)이었고, 그 자세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Priority of what should be treated as the most important of the children's operating programs

Variable	Categories	Respondent	Percentage
Priority of what should be treated as the most important of the children's operating programs	Formation of basic life and habit	131	34.7
	Physical development, offer of nourishment	51	13.5
	Infection prevention and safety management	63	16.7
	Emotional stability	86	22.8
	Relationship with friends Social life	26	6.9
	Language development, Communication skill	12	3.2
	Study guidance, Cognitive development	8	2.1
	Artistic talent, Creative education	1	0.3
All	378	100.0	

맞춤보육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보면 1순위는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으로 217명(57.4%)이었고, 2순위가 ‘보육 시설의 환경개선’으로 88명(23.3%)이었으며, 3순위는 ‘행정부처의 철저한 관리’로 48명(12.7%)였다. 자세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8. Priority of policy required for the operation of Customized ChildCare Center

Variable	Categories	Respondent	Percentage
Priority of policy required for the operation of Customized ChildCare Center	continuing education of child care educators	217	57.4
	Education of parents	11	2.9
	Management supervision of administrative department	48	12.7
	Environmental improvement	88	23.3
	Connection between hospital, police etc	14	3.7
	All	378	100.0

2.3 논의

2.3.1 주이용자의 근로시간과 돌봄 공백의 문제

영아취업모의 56.9%, 유아취업모의 55.2%에서 주 40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어 있고, 1/3 이상이 시간외 근로 및 주말근무를 하고 있으며[7,18], 영아취업모 및 유아취업모의 약 20% 정도에서 종일반 운영시간 관련해서 돌봄 공백이 발생하게 되어 어린이집 이외로 별도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19] 따라서 24시간 연속적 근무를 해야 하는 간호사 취업모를 위한 맞춤형 보육 어린이집은 24시간 365일 휴일 없이 연속적으로 맞춤형보육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맞춤형보육이 활성화되려면, 이용자의 요구에 만족스럽게 변화되어야 하며, 특히 취업모의 입장에서 맞춤형보육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중 ‘보육시설을 믿지 못해서’가 23-26%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므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3.2 어린이집 수요·공급 간 차이의 문제

2015년 학부모 대상의 연구결과에서 맞춤형보육(시간연장·24시간·휴일보육)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8.4%이고 이용할 의사가 있다는 62.5%이었는데, 어린이집의 운영자의 응답에선 36.7%만이 필요하다고 했고,

27.0%만이 그 운영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 공급의 차이로 인한 맞춤형어린이집의 공급이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서비스이용의 활성화를 방해할 수 있는데, 그의 대한 대책은 운영자의 입장에서 맞춤형보육서비스 운영상의 어려움을 돕고 개선사항요구를 들어주는 것이며, 이는 보육료의 현실화[7, 21-24], 다양한 연령층의 구성으로 인한 통합된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 및 적절한 프로그램의 부재[21-22,25], 안전관리 및 위급사항 시 대처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만 하며 [21-22,26], 전문성을 지닌 교사 수급의 어려움 해소 및 근로조건에 대한 개선 등[7, 22, 24,25,27] 이러한 운영자의 요구사항이 해결되어 운영자들이 열의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 맞춤형보육어린이집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2.3.3 맞춤형어린이집의 운영의 어려움

맞춤보육서비스 중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시간 연장보육은 2015년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6,742개소)중 2,000개소(29.7%)가 시간 연장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혼합연령보육, 시간 연장보육의 질적 문제, 보육교사 근무환경 악화, 운영상 비효율성, 체계적 관리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시간 연장보육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어왔다. 그리고 24시간 보육과 휴일보육은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있어도 이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 이용자가 있어도 대상자가 적은 형편이다. 최근 주 5일 근무가 확산되고 휴일근무를 줄여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몇몇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토요일 보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토요일 보육 거점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7], 시간 연장형의 시설을 거점형식으로 운영하면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지만[29], 거점형식의 제도는 운영 시 접근성의 문제와 아동의 이동 시 안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돌보는 자의 달라짐으로 인한 아동의 적응이 어려울 수가 있다. 따라서 간호사를 위한 맞춤형보육어린이집은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 중인 거점 형 시간 연장어린이집에 제공되는 교사인건비100% 지원, 시간 연장프로그램 운영비로 매월 반당 20만원 지원, 취사부 수당 매월 30만원 지원, 차량운행비 매월 50만원 지원, 아동 및 교사의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2명 이상의 교사 배치 등의 조건이 동일하게 제공되면서 병원과 가까운 곳에 간호사를

위한 맞춤형보육어린이집이 개설되어야만 간호사의 일·가정을 병행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이용률이 향상되어 이직 및 사직률을 저하시킬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더불어 보육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 아동의 충분한 휴식과 정서적 안정, 안전한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이용가구에 대한 지원 및 가족과의 연계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다[7].

2.3.4 맞춤형보육어린이집에 대한 인식도

가임기간호사의 맞춤형보육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인식도를 보면 ‘맞춤보육어린이집(24시간 운영)을 자신이 직접 이용하거나 추천하겠는가’의 질문에 긍정적인 답이 82.4%이었는데, 이 결과는 [10]의 연구에서도 82.2%를 보여 거의 같은 비율의 결과를 보였다. 이는 [26]의 결과에서 휴일보육 이용이유가 휴일 근무 87.0%, 갑작스러운 사정47.8%로 나타났고, [20]의 결과에서도 부모가 시간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이유가 퇴근이 늦어서 79.2%, 저녁에 돌봐줄 사람의 부재15.8%로 나타났었다. 그리고 간호사는 특히 근무형태가 불규칙하고, 응급 상황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자주 생기는 직업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돌봄 공백의 걱정이 없는 365일 휴일 없는 24시간 어린이집인 맞춤형보육어린이집에 대한 필요와 절실한 요구도를 보여주는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리고 ‘결혼 여부’별 비교분석 결과에서는 기혼·미혼그룹 모두에서 3.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10]의 연구결과에서도 두 그룹 모두에서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미혼 두 그룹 모두에서 맞춤형보육어린이집 운영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미혼에서도 원하므로 간호사를 위한 맞춤형보육 어린이집이 생긴다면, 결혼을 유도한다거나 출산을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 사료된다.

‘맞춤보육어린이집(24시간운영)이 있다면 자녀출산 후 퇴직·이직이 감소되겠는가’의 질문에는 긍정적인 대답이 본 연구에서 76.3%이었고, [10]의 연구에서도 77.8%로 비슷하게 높게 나왔는데, 이 결과는 돌봄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대체 인력이 없을 경우 퇴직하는 사례로 보아 맞춤형보육어린이집으로 그에 대한 근심이 사라짐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도 있다. 본 연구의 ‘연령별’에 따른 인식을 비교분석한 결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35-39세에서 즉 경력이 높은 간호사들에서 평균점이 가장 높았는데, 이 결과는 간호사의 맞춤형보육어린이집

운영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보육의 부담감으로 인한 간호사의 병원현장 이탈을 저하시켜 현재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간호사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의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임을 의미하고, 취업모인 간호사의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결혼여부’ 별 비교분석 결과에서 ‘기혼·미혼’ 그룹에서 모두 3.0이상으로 높게 나왔다. [10]의 연구결과에서도 이 문항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는데, 맞춤형보육어린이집 개설은 취업모인 간호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맞춤형보육어린이집이 있다면 추가 출산 계획을 세우겠다는 가의 질문에 본 연구의 결과에서 긍정적인 대답이 61.9%이었고, [10]의 연구결과에서는 긍정적인 대답이 53.4%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서의 차이는 본 연구의 대상은 가임기 간호사여서 높게 나왔고, [10]의 연구대상은 일반 간호사로 40대 50대 간호사가 24.3%를 차지하고 있어서 추가출산이 어렵다는 생각이 반영되어 다소 떨어진 결과를 보였다고 사료된다.

또한 연구결과에서 ‘자녀수’ 별 비교분석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자녀가 ‘1명’인 그룹에서 2.86으로 가장 높았고 ‘자녀가 없는’ 그룹에서도 2.81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실질적으로 추가 자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가임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높게 나왔으므로 맞춤형보육어린이집을 개설하는 것은 추가 출산을 계획하는데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결혼여부’ 별 비교결과에서 미혼그룹이 2.82로, 유의하게 높게 나왔고, [10]의 결과에서도 미혼 그룹이 2.81로 높게 나와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미혼’ 그룹에서 맞춤형보육어린이집이 운영된다면 결혼이 증가하고 자녀출산계획도 세울 수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겠다.

‘맞춤보육어린이집이 있다면 분만비율이 늘 것인가’의 질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긍정적인 답이 61.4%이었고, [10]의 결과에서는 60.3%이었는데, 이 결과는 맞춤형보육어린이집 운영이 출산을 증가 부분에서도 고무적일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2.3.5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가임기 간호사가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의 1순위가 ‘교육환경과 교사의 자질’이 185명(70.6%)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343명 간호사를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1순위는 ‘교육환경과 교사의 자질’로 235명(68.5%)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고[10], [5]의 연구에서도 1순위로 ‘교육환경과 교사의 자질’로 일치하였다. 또한 [6]의 연구결과에서도 1순위가 ‘교사의 따뜻한 인성과 전문적 자질’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는데, 이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맞춤형보육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교육환경과 교사의 자질’이 가장 중요한 조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맞춤형보육어린이집의 프로그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내용의 1순위는 ‘기본생활과 습관형성’으로 131명(34.7%)이었는데, [10]의 연구결과에서도 1순위가 ‘기본생활과 습관형성’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5]의 연구결과에서도 1순위는 ‘기본생활과 습관형성’으로 일치하였다. 이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맞춤형보육어린이집 운영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프로그램 내용은 ‘기본생활과 습관형성’임을 알 수 있었는데, 간호사 대상 연구에서는 특이하게 ‘감염과 안전’이 2위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육교사 대상으로 감염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는 연구결과에서도 감염과 관련된 모든 문항에서 인식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는데 [30], 이는 아동들의 공동생활로 전염병이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고 간호사를 위한 맞춤형보육어린이집에서는 더욱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맞춤보육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본 연구결과에서 1순위가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으로 154명(58.8%)이었는데, 일반 간호사들 대상의 연구결과에서도 1순위는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고[10],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시간 연장어린이집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5]에서는 1순위가 ‘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6]의 결과에서도 시설과 환경이 좋아서 어린이집을 선택했다가 50.6%로 나타나 일치함을 알 수 있어서 어린이들의 안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구축이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간호사의 근무지가 감염병 전염이 가능한 환경일 수 있으므로 간호사를 위한 맞춤형보육어린이집의 환경구축에서도 안전과 좋은 질의 환경 구축을 고려함이 필요하다.

3. 결론

전 국민에 대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실시와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하여 숙련된 간호사를 확보하고, 사직·이직을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간호사는 365일, 24시간 연속적으로 교대 근무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취업모인 경우 타 직종인 보다 육아에 대한 어려움이 크며, 종합병원들이 속한 중소병원의 간호사의 이직률은 22%에 달한다. 따라서 취업 간호사의 이직 및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육아서비스를 적용하는 것은 간호사의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 이직을 방지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9].

특히 간호사의 역할 중 돌봄 제공자의 역할은 간호사의 최우선 역할이며,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지식 체를 바탕으로 대상자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31], 따라서 퇴직한 유휴 간호 인력을 간호사 자녀 돌봄 인력으로 활용한다면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리고 취업모인 간호사의 근무상황 및 인식, 요구에 맞춰서 어린이집이 운영된다면 간호사들의 퇴직·이직률이 낮아지고, 추가 출산 계획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어 저 출산율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의 자질을 고려하여 채용하며, 영유아의 기본생활과 습관형성을 돕도록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관리와 노력을 기울인다면 맞춤형육아어린이집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제언해본다면, 본 연구의 결과는 맞춤형육아어린이집의 사례가 적고 선행 연구의 결과 또한 한정적인 점이 본 연구결과와의 한계점이므로 이 결과를 맞춤형 어린이집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의 연구결과로 확대 해석하는데 주의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ursery project information, 2013.
- [2] Childcare Policy Research Institute, A Woman in her thirties who is four years old, talk to a child every night' 'Daily economy, 2013.
- [3] S.J.Yoon, H.S.Park, "The effects of autonomy of toddler and peer interactions 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toddler-teacher interactions in 24-hour childcare centers" *Childcare support research*, Vol.11, No.2, pp.158 -173 , 2016.
DOI: <https://doi.org/10.5423/RPD.2005.11.2.158>
- [4]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 Study on the Paradigm of Women-Family Police in New Gender Equality, Jeju Women's Family: Family Policy Forum. pp. 30-33. 2017.
- [5] M. H. Kim, *A Comparative Research on the Awareness of Running Expanded Hours of Day Care Centers in the Jeju Region between Parents and Day Care Center Teachers*, Master's thesis, Jeju University, 2012.
- [6] T. J. Son, The research for extend way of 24Hr child care cente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014
- [7] S. Y. Kim, Study on Measures for the Service Improvement of Seoul Customized Childcare-focusing on service hour extension, 24-hour services, and childcare for holidays. Research Fellow Family Policy Research Department, pp. 1-186, 2015.
DOI: <http://www.dbpia.co.kr/Article/NODE07050881>
- [8] H. Y. Lee, The factual survey on nursing man-power,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017
- [9] O. S. Kim, "Urgent improvement of nursing and patient safety measures", *Korean nursing association* Vol.53, No.2, pp.4-39, 2015.
- [10] K. S. Kang, "Establishment Model of Nurse Run 365 Day 24/7 Child-Care Centers." *Jeju Halla Researcher* pp. 1-17, 2016
- [11] H. J. Park,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Perception of Childcare Centers with Extended Time*, Ph.D dissertation, Cheong ju University, 2011.
- [12] J. S. Cho, Y. K. Cho, "Satisfaction and needs of parents and teachers at 365 open child care and education services in Seou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Vol.18, No.3 pp. 107-131, 2014.
- [13] J. A. Hwang, S. J. Kim, "The Expectations of Child-Rearing to Mothers with their Firstborn Infant and Toddler",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6, No.12, pp. 153-162, 2016.
- [14] J. Y. Ku, D. K. Lee, "Raising children of nurse mothers" *Open Infant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Vol.22, pp. 35-58, 2017.
- [15] Y. S. Park, D. S. Cho, E. H. Lee, J. I. Kim, H. S. Shin, J. W. Jung. *Women's health care* 7. Soomunsa, 2012.
- [16] H. S. Lee. *Korean dictionary*, Minseorim. 2013.
- [17] Result of Korean Birthrate Survey. 2010.
- [18] H. J. You, S. A. Hong, J. H. Kim, S. Lee, J. Y. Dong, H. L. Lee. A Study on the Police of Support for Child Care by Occupation and Employment Types of Working Women. *Korean Women's Policy Research* -er. 2012.
- [19] H. M. Ahn, A. R. Park. The Status of Free Child Care Services in Korea: centering on the parents of Infants and Toddlers in Seoul. Seoul Women's Family Foundation, 2013.
- [20] M. H. Seo, M. S. Yang, Y. S. Kim, Y. K. Choi, Ch.

K. Son, H. M. Lee. A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 of Nurture in Korea: A report on family lif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

- [21] M. H. Kang, M. H. Kim, K. H. Lee, J. O. Jung, "A Study on Current Status and Needs Assessment of 24-hour Child Care Services in Korea", *Korean Infant and Child-Care* Vol.22, No. pp. 27-56, 2000.9.
- [22] S. J. Cho, H. J. You, M. J. Kang, H. K. rOh. A Study on the Effective Analysis of the Pilot Project to Support Work Allowance for the Expanded Time Teachers and the Promotion of the Expanded Time Childcar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0.
- [23] S. J. Baek, N. E. Kim.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the Day Extension ChildCare Center in Gyeonggi-do. Gyeonggido Women's Family Research Institute, 2012.
- [24] H. J. Kim, S. Y. Yoon, "Improvement Plans of Customized Child Care for Reasonable Management - About 24-hour ChildCare", *Korea Infant Nursing Science* Vol.90, No. pp.131 -157 , 2015.
- [25] K. S. Song, "Status of Extended Hour Child Care Service of Child Care Facilities and the Perception and the Requirements of Child Care Teachers",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Vol.13, No.2 pp. 24-25, 2013.
- [26] M. J. Kim, Y. J. Ahn. 2014.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of childcare for holidays in Gyeonggi-do. 2014.
- [27] J. H. Kim, K. A. Lee, H. S. Seo, H. J. Choi. Research on Special Child Care(Extended timetype) Demand and Policy Alternatives,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Ewha Women's University Industrial Academic Cooperration Group), 2004.
- [28] W. J. Lee, "Working mothers' Work-Child Rearing Strain and their Demand on Back-up Care Services", *J of the Korean Family Management*, Vol.27, No.4 pp. 117-126, 2009.
- [29] M. H. Seo, M. S. Yang,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Satisfaction of Extened-Time care", *J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upport of Child Care*, Vol.9, No.4 pp. 259-276, 2013.
DOI: <https://doi.org/10.5532/KJAFM.2007.9.4.260>
- [30] I. O. Kim, H. J. Park, "A Survey on the Situation , Experience and Educational Need of Infectious Diseases Management of ChildCare Teacher",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Vol.14, No.1 pp. 23-50, 2014.
- [31] S. H. Yang, J. S. Won, H. J. Baek, H. S. Cho. Fundamentals of Nursing VII. Hyunmoonsa, 2017.

강 기 선(Ki-Seon Kang)

[종신회원]



- 1987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1997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1977년 3월 ~ 1981년 4월 : 서울대학교 병원 간호사
- 2018년 3월 ~ 현재 : '통일간호' 제주도지부장

- 1989년 9월 ~ 현재 :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18년 10월 ~ 2020년 2월 : 대한간호협회 정책연구소협력연구원

<관심분야>

간호학, 해부학, 활동과 운동, 호스피스 간호, 간호와 영양